“나와 세상 밝히는 ‘화합’ 등불”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5월 16일 연등법회 봉행

동국대 운동장에 3만명 운집
‘마음 평안 · 세상 화합 연등회’
진우 스님 “희망의 상징 되자”
1000여 명 참여 어울림마당

글=김내영 기자 · 사진=특별취재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찬탄하고,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가 성대하게 봉행했다. 초여름 더위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의 열기가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16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펼쳐진 올해 연등회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으로 지친 국민 모두에게 치유와 평안, 화합의 정신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연등법회는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며 번뇌를 씻어내는 관불의식으로 시작됐다. 참석 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 내면을 밝히고 청정한 삶과 지혜를 밝히겠다고 발원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3만여 사부대중이 함께한 ‘마음 평안’을 위한 5분 선명상 등도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이라고 이번 연등법회의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존재이지만, 나와 다른 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탐냄과 성냄에 집착해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연등은 욕망과 분열의 불길을 자비의 감로수로 식히고, 대결의 현장에 화합의 언어를 꽃피우는 희망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5월 16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돼 ‘세상의 화합’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된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담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경전 〈붓다차리타〉를 봉독하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여래(如來)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 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의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발원문에서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로 참된 평안과 안온이 이 땅에 깃들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내려놓고 이해와 자비로써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매 순간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를 잃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기원문에서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쟁의 지혜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능원 정사는 “오늘 사부대중이 밝힌 연등은 지혜의 등불이 돼, 무명을 밝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며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에 내 것과 네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서원했다.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기원 메시지’도 발표됐다.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빈자일등과도 같이 정성스레 만든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빛은 어둠을 걷어내는 꺼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이라며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이웃의 길을 비추고,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인연의 연등이 돼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청년 율동단과 연희단 1000여 명이 참여한 어울림마당이 펼쳐졌다. 40여 개 단체가 준비한 율동과 전통 연희가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참석 대중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연등행렬을 위해 정성껏 등을 준비한 단체들을 격려하는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등선정상’은 한마음선원이, ‘연등지혜상’은 도선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등인욕상’은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승가사, 조계사, 호압사, 옥천암, 구룡사, 석불사, 동국대 불교대학이, ‘연등지계상’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국제선센터, 삼성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승가원, 삼천사가 수상했다. ‘연등정진상’은 불광사, 법안정사부부불자회, 진관사, 진각종, 금륜사, 화계사, 봉은사가 받았다.

연등회 어울림마당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행진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조계종 종책연구위 “AI 불교 역할 모색”

진우 스님, 5월 14일 위촉장 수여
AI · 포교 · 교육 · 문화 등 전문가

조계종단 미래 정책을 모색하고 제도를 연구할 조계종연구소 종책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책연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응용불교(AI) 분야에는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이 위촉됐다. 종무행정 분야에는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낸 현무 스님이 참여한다. 포교 분야에는 일본 하나조노대학에서 계율학 박사를 취득한 법장 스님이, 포교(아동교육) 분야에는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인 청라 스님이 위촉됐다.

교육 분야에는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부교수인 정현 스님, 종교심리학 분야에는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불교문화 분야에는 성청환 동국대 불교무형문화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가운데)과 종책연구위원들.

진우 스님, ‘달마키즈’ 격려

5월 11일 김상겸 · 유승은 선수에
“원력 모여 만들어낸 결과”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유승은 선수에게 앞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5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상겸·유승은 선수의 예방을 받았다.

김상겸 선수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유승은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2003년부터 진행해 온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이하 달마배)를 통해 성장한 ‘달마키즈’로, 메달 획득 당시 ‘달마배’의 지원이 큰 이슈를 모은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원력이 모이면 결국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열악한 환경 속 각각의 원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선수들의 노력과 가족들의 지원을 칭찬했다.

김상겸 선수는 오랜 기간 이어진 ‘달마배’의 후원과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후배들이나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염원했다.

유승은 선수도 “‘달마배’에서 두 번이나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로 등용문이 된 게 아닐까 싶다”면서 “가족들 모두 기도하며 불교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황석영


황창연


박명성


김상겸

불자대상 황석영 · 황창연 · 박명성 · 김상겸

한국불교 위상 제고 공로로
5월 24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5월 12일 “황석영 작가 등 4명을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석영 작가는 〈장길산〉 〈바리데기〉 〈철도원 삼대〉 〈할매〉 등을 통해 연기와 윤회, 보살행, 동체대비 등 불교적 가르침을 문학으로 구현하고 있다.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는 지난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공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공사에 임해 종단의 수행과 행정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2024 불교도 대법회’ 총감독을 맡아 현대적 연출 기법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불교 의례를 예술적으로 구현하고, 대법회를 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확장시켰다.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는 달마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 국위를 선양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함께 개최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시상한다. 김내영 기자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갈등의 상처에는 자비를
불안한 마음에는
지혜를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